

코로나19 업무 폭증 교원 한숨 돌릴까

교육부 연말까지 학교 방역위한 인력 4만명 지원 “범 교과 이수 시수 감축 등 교원 업무 부담 경감”

코로나19로 학업 지도 외에 방역 업무까지 떠맡고 있는 교원들을 위해 방역인력이 대폭 증원된다.

교육부는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직업 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AI) 교육 종합 방안 마련 등 중점과제 6건을 선정,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중점과제는 일반국민과 적극

행정 모니터링단,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발간한 것이다.

먼저 교원 업무부담 경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수업부터 학생생활 지도, 방역까지 담당하면서 교원들이 인력 부족을 호소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까지 방역 등 필요 인력 4만명을 지원함과 동시에 학교 대상 사업 축소·조정, 범교과 학습주제 의무 이수 시

수 감축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교총 등은 지난달 11일 제주도내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숨진 60대 기간제 교사의 사망 원인에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도 작용했다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교육부는 감염병 관련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즉시 등교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우려되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3만개의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형 원격교육 발전 기

반을 위해 올해 내로 ▷공공 플랫폼 고도화 ▷교원 대상 원격수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을 위해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담긴 학습공간 구축이 이뤄지고, AI 교육 확대를 위한 종합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우수공무원 20여명을 선별, 이중 10명 이상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문범기자

수산물 불법포획 30대 적발

밤에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3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34·인천)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24분쯤 제주도 한림읍 귀덕리 인근 해상에서 부력조절기인 낚벨트를 착용하고 문어 3마리와 오징어 1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이 아닌 자가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해수욕장 개장후 첫 주말... 곳곳에 '한산' 도내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해 첫 주말을 맞은 5일 제주도 조천읍 함덕서우봉해수욕장이 곳곳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희만기자

요양시설 이달부터 '제한적 비접촉면회'

제주시 “사전예약제·투명 차단막·신체접촉 금지 전제 시행”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험시설로 분류돼 낱달 넘게 면회가 제한됐던 요양시설에서 이달 1일부터 비접촉 면회가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7월부터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족면회를 비접촉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 지역에서는 노인양로시설 2개소에 79명, 노인요양시설 45개소에 2266명의 노인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요양시설은 입소자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는 고령자들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가족들의 면회를 2월 24일부터 제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입소 노인들이 4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고 가족들의 민원도 이어져 왔다.

제한적 비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시행된다. 요양시설에 ‘면회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 면회일시·인원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면회실은 시설내 환기가 잘되는 장소로 노인과 면회객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신체접촉·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손소독·마스크·비닐장갑 착용을 의무화한다. 시설측에서는 발열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

비접촉 면회가 시행되더라도 예전처럼 대면 면회는 불가능하다. 면회객과 입소노인들은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출입구 쪽 별도공간이나 야외공간에 면회가 이뤄진다. 공간이 여의치 않은 시설에서는 현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제한적 비접촉면회를 시행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면회 이후에도 노인들과 면회객의 발열 등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1회 소방장비 대회 제주소방본부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세종시 소재 정부2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소방장비발전 연합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제주소방본부는 '빅 데이터 기반 맞춤형 MR(혼합현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소방차량 운용능력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정병도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장비의 혁신은 곧 소방의 혁신”이라며 “소방장비 발전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보통 한우 크기 두배 '슈퍼한우' 탄생 형제농장 정형원 대표 1221kg 한우 시장 출하

제주에서 일반 소 몸집의 두 배에 가까운 '슈퍼 한우'가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5일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한우 사육 농가 '형제농장' 정형원(57) 대표가 '1++C' 등급, 생체중 1221kg, 도체중 800kg의 한우를 키워 지난 1일 시장에 출하했다.

>> 사진



올해 전국 평균 한우(거세) 도체중이 442kg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1.8배에 해당하는 무게로, 교잡우가 사육된 이후 제주 한우 역사상 최고 중량을 기록했다. 한우 등급은 '1++A'가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1++B', '1++C' 순이다.

이날 형제농장에서 출하한 다른 한우(1++C등급) 역시 도체중 665kg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능

가했으며, 지난 2016년에도 779kg의 한우(1++C등급)를 출하하는 등 전국 평균을 넘는 슈퍼한우를 매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축협은 지난 1일 제주공판장에서 형제농장이 출하한 한우 2마리를 모두 도축했으며, 흑한우명품관에서 형제농장의 슈퍼 한우를 판매할 예정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 이번주 오락가락 장맛비 예보

기상청 “6일 오후부터 8일 멈춘뒤 9일부터 또 비”

7월 둘째주 제주지방은 흐리고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가 반복하는 날씨 예보되고 있다.

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5~20mm 안팎 내린 비는 6일 오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오후부터 또 전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8일 오후 잠시 멈췄던 비는 9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돼 일요일인 12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번주 기온은 오전 최저기온이 22~25℃, 낮 최고기온이 26~30℃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말부터 낮 최고기온이 30℃까지 올라간 후에는 계속해서 30~31℃까지 치솟으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도 해상에선 8일과 10~11일에는 물결이 1~3m로 일고, 그 밖의 날은 1~2m로 일겠다.

제주기상청은 “8~9일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상층기압골에 동반된 찬공기의 강도와 10~14일 정체전선의 북상 정도에 따라 기상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연동 원룸서 방화추정 화재

5일 오전 4시16분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원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해당 원룸에 거주 중인 A(56)씨가 다쳐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소방서 추산 3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취 축 임

제주시장

제주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 동 우
(69회)

농 제주고등학교총동창회 회장 **오 진 선** 외 동문일동